

회장단 동성

윤종용 회장, LCD합작사인 S LCD(주) 창립식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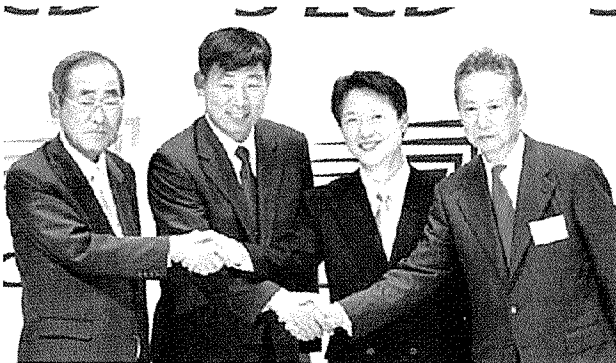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소니의 TFT LCD 합작사인 'S LCD주식회사(이하 S LCD)'는 1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건설 중인 TFT LCD 패널 공장동 및 관련 시설동의 완공과 설비 반입에 맞춰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기념식 행사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데이 소니 회장, 장원기 S LCD CEO, 나카자와 S LCD CFO 등 합작 양사의 임직원을 비롯해 심대평 충남도지사, 다카노 일본 대사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S LCD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착수, 내년 말에는 월 6만장의 원판그라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32인치 월 60만장, 40인치는 월 45만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S LCD는 이곳에서 생산한 물량을 삼성전자, 소니에 각각 50%씩 공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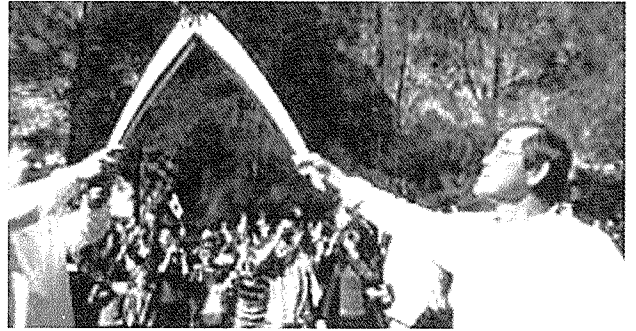
장원기 S LCD CEO는 "7세대 합작법인의 성과를 보고 8세대 투자에 대해서도 소니와 합작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카자와 S LCD CFO는 "물류 최적화 및 중국 등 인근 시장 공략을 위해 소니의 TV공장을 탕정에 짓는 것도 의미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검토해 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소니의 LCD 합작사인 'S LCD주식회사'가 1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현판제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왼쪽부터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원기 S LCD 대표, 나카자와 게이지 S LCD CFO, 이데이 노부유키 소니 회장

윤종용 회장, 그리스방문 성화 봉송행사 참여



윤종용 본회 회장(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음달 12일 그리스를 방문, 성화 봉송행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행사 참가를 전후로 유럽지역의 삼성전자 해외법인들을 방문, 사업현황을 점검한다.

본회, 디지털 TV 내수확대 업계 간담회 개최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과 함께 관련 산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본회(상근부회장 : 이감열)는 7월 13일 디지털TV 제작업체와 산자부·학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디지털TV 내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내수 부진 탈출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본회 이감열 부회장, 세계전자무역포럼(WTFEI) 참가

본회 이감열 부회장은 중국정부 초청으로 중국전자상 공회외소(CECC)가 주최하고 중국신식사업부, 과학기술부 등이 후원하는 전자산업 세계무역포럼(WTFEI)에 참가해 『한국전자업계의 무역장벽 대응』이라는 주제로 반덤핑, 정부보조금, 특허침해 소송 등 우리 전자업체들이 겪었던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 그리고 향후 통상마찰에 대한 해결책 등에 대해 설명, 포럼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번 행사는 세계 전자, IT산업 수출입 업체간의 WTO 규범과 조달에 대한 이해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청도에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규모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전자대표단체장들과 통상관련 정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WTO 무역 원칙 이행, 자유무역과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보호, 정부 및 세계 조달 절차, 전자제품의 세계 유통 및 대행 시스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등 세계 전자단체장들과 함께(2004. 6. 1)

김쌍수 LG전자 부회장 TIME誌, '현장경영 철학' 소개

LG전자 金雙秀 부회장이 유력 주간지인 'TIME'誌 최신호에서 혁신경영의 리더로 6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됐다. TIME誌는 LG전자를 '차세대 리더(Next Big Player)'라고 표현하며 LG전자의 글로벌 비즈니스 현황과 경영혁신 사례 및 김쌍수부회장의 경영철학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기사 첫머리에서 김부회장을 '현장의 사나이(A Man of the People)'로 표현하며 LG전자가 최근 2~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로, '현장경영', '최첨단 기술력과 디자인',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손꼽으며 김쌍수 부회장의 경영철학과 리더십을 강조했다.

TIME誌는 최근 수년간 소니를 비롯한 전자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LG전자는 지난해 18%의 매출신장과 33%의 순이익 성장율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전자업체라고 소개했다.

또한, 김쌍수 부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6시그마와 TDR(Tear Down & Redesign)활동이 LG전자가 매년 20% 이상 성장한 비결로 평가했으며, 현재 사무직 가운

데 40%인 R&D인력을 내년까지 60%로 늘린다는 계획과 혁신활동을 통해 LG전자가 2010년 전자·정보통신 글로벌 TOP3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LG전자가 과거의 Gold Star브랜드와 Zenith브랜드로 저가위주의 시장공략에서 변모해 LG라는 고급브랜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거실이 평판디스플레이, DVD플레이어 등 첨단 디지털 제품으로 변모하는 환경이 LG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으며, LG전자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매우 뛰어나게 자리잡고 있는 업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이르며, MP3,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기능이 포함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휴대폰은 경쟁회사인 노키아와 모토롤라 등을 제치며 지난해 버라이즌의 최고 공급자가 되기도 했으며 최근의 경영성과를 설명했다.



미국시장에서의 LG의 성공에 대해 미국최대 유통망을 보유한 베스트바이(Best Buy)의 가전구매담당 매니저인 리사 스미스(Lisa Smith)는 "지난해 부터 LG의 냉장고,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컨트롤러가 자동차 패널같이 화려한 디자인으로 젊음층에 히트를 치고 있어 매장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휴대폰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LG전자 제품들을 호평했다고 소개했다.

TIME誌는 김쌍수부회장이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냉장고 사업부에 샐러리맨으로 입사후 CEO의 자리에 오른 과정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LG의 역사에 남고 싶다" 김부회장의 소감을 의미있게 소개했다.

EIAK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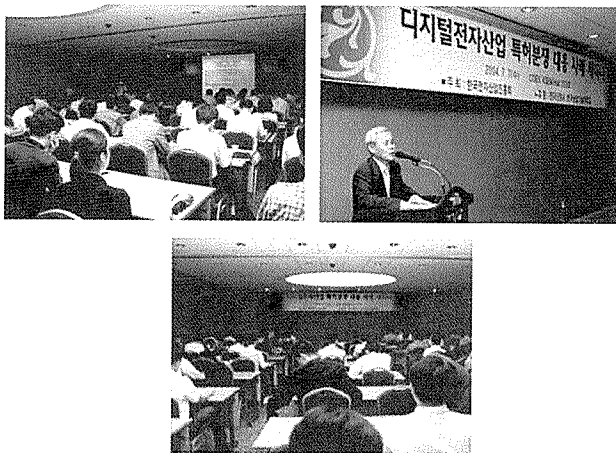
한·일 FTA체결시, 일부 전자 품목 관세유예기간 연장해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국내 전자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유예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본회 최영훈 본부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등 경제 4단체가 7월 13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FTA 대토론회에서 '전자산업부문의 한·일 FTA 영향과 대응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산업의 경우 제조 및 응용기술은 일본과 경쟁력이 비슷하나 핵심 기술 및 소재와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케팅 능력 등은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 FTA체결시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관세유예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자산업 특허분쟁 대응사례 세미나 개최



본회(회장 : 윤중용)는 전자정보산업체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며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분쟁 대응사례 세미나를 7일(수) 오전, COEX 신관 2층 아셈홀 203호에서 특허관리업무담당부서장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한·일간 PDP특허분쟁, 국내 휴대폰 업계 및 국내 중소 MP3플레이어 업계에 대한 특허공세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개최돼 업체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체계적으로 특허관리 활동을 하기에는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잡한 지재권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지재권을 확보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시 적절히 대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간의 특허분쟁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정리하여 특허관리 및 분쟁 대응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 전략유형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돼 업체들의 실질적인 특허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었다는 세미나 참가자들의 평가다.

한 중소기업 특허담당자인 이 재연씨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전담부서도 없고 우리 생산품목에 특허침해 경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프로세스도 몰라서 난감한 상황인데 오늘 같이 실제 있었던 사례 세미나를 보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특허분쟁에 대비 정기적인 전문 아카데미가 있으면 좋겠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한·일 전자부품DB 통합시스템 상호연계로 동북아 B2B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본회는 지난 7월 7일 COEX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자분야의 주요 부품DB 검색사이트를 연계하여 Single sign on 방식에 의한 한·일 전자부품 통합검색 지원이 가능한 한·일 전자부품DB 통합시스템 시연 발표회를 가졌다.

이는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전자업종에서의 한·일 e-biz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그동안 양국간 보유하고 있는 전자부품 DataBase 시스템 상호연계를 위한 각종 분류체계와 Contents 등을 교환하고 연구함으로써 양국의 전자부품이 독자적인 관리체계에서 On-

Line 상의 Global 부품 DataBase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상품의 비교검색을 통한 최적의 상품구매가 가능한 한·일 양국의 최대 전자부품 DB로, 전자산업의 Sourcing 비용절감 및 경쟁력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의 시스템 연계에 이어 중국도 연계를 고려하고 있어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의 전자상거래(B2B)협력 시대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 개최 될 것으로 보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수 있다.

본사업은 2001년 2월, 산업자원부의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합의를 바탕으로 전자업종에서의 한·일(전자업종) 협력채널로 한국의 전자산업진흥회(EIAK)와 일본의 전자정보기술협회(JEITA)가 한·일(전자업종) 전자상거래 표준화(위) 교류화 활동을 통해 e-biz 시대의 공동대응과 e-Marketplace의 확산, 전자사업 협력을 위해 진행되었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양측에서는 전자부품 분류체계 / 전자카탈로그 거래항목의 표준사전의 정보교환, 교환모델의 연구를 통해 양국간 전자부품DB 정보의 교환을 통해 양국의 전자부품검색시스템을 연계 하기에 이르렀다.

본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부품 DataBase는 2000년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 시범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하에 전자상거래 인프라시스템 개발로, 구축한 것으로 ISO, IEC, JEITA 등과 같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체, Set업체가 참여하여 업체내부 정보관리, 업체간거래, 업체간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전자업종 공동의 표준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부품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B2B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한국의 전자산업진흥회와 (주)일렉트로피아가 www.e-pia.net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6월 현재 390여 부품 생산업체들이 120만여 부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여개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JEITA는 2000년 5월 ECALS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본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국책과제로 전자부품DB를(www.e-parts.org)구축해 왔다. ECALS 위원회는 2000년 8월에 실용화를 시작으로 IEC 표준등에 준거해서 개발된 ECALS 사전을 공표, 데이터 등록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소프트웨어를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모집하는 등의 적극적인 시책으로 DB를 구축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52만여건의 부품 정보를 제공, 이용하고 있다.

이번 양국의 통합 전자부품검색시스템은 지난 2003년 6월에 OPEN한 1차 연계 방식인 Single-Sign-On 방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양국의 전자부품 DB를 완전통합하여 통합 검색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통합전자부품 검색시스템은 양국의 전자부품 DB를 하나의 View를 사용하여 동일한 분류체계와 속성항목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자부품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어 그 편리성을 극대화 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시스템 연계는 전자상거래의 핵심 인프라인 표준화 DB의 공동활용 협력으로 핵심제품 및 부품 공급국으로서 양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전자상거래의 핵심 인프라인 표준화 및 DB교류 상호연계로 e-Business 시대의 공동대응 함으로써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Initiative를 선점하여 전자산업의 제2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e-biz 협력사업에 중국과 대만에서도 관심을 갖는 등 동북아 B2B 전자상거래 협력사업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이러한 e-biz 협력사업이 구체화 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부품의 전자상거래가 본격화 되면 전자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개척 등 부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 『경영혁신 및 자금조달 전략 컨퍼런스』개최

본회(회장 : 윤종용)는 오는 22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중소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및 자금조달 전략』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소전자업체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자금확보 전략과, 모든 기업들의 과제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 경영혁신 등에 대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빙되어 실사례 중심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자금의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정영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표하며, 이어서 월별 정책자금 일정 및 기업입장에서의 정책자금 조달일정 등의 사례중심으로 하반기 및 차기년도 정책자금 조달계획 수립방안과 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IPO)의 세

부 일정계획 및 핵심사항 등에 대해 그린솔루션의 김용균 대표이사가 발표한다.

또한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박진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대기업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및 생산정보화 시스템의 벤칭마킹을 통한 중소기업형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끝으로 통합경영혁신 전략에 대해 김용균 그린솔루션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발표하게 된다.

최근 수출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내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 컨퍼런스 행사가 업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진흥회는 내다보고, 업체들의 경영상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통합경영과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를 의견수렴 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향후에도 이러한 컨퍼런스를 지속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회, 대만 휴대폰부품 수출 상담회 개최

본회(회장 : 윤중용)는 국내 휴대폰부품 업체의 대만시장개척을 위하여 오는 8월 25~26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대만 휴대폰 제조업체와의 부품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만은 휴대폰 생산량이 2003년 4,400만대에 이르고 2004년에는 6,300만대로 전년 대비 43%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등 중국, 한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생산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품의 수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산업자원부와 KOTRA의 지원을 받아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오는 8월 24일(화)부터 28일(토)까지 대만 주요 휴대폰제조업체와의 무역상담회를 타이베이에서 개최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지난 6월 KOTRA와 함께 대만의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방문하여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대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 부품 및 S/W를 상세히 파악한 바 있다.

또한 국내 휴대폰 부품산업 및 업체의 소개를 위하여 별도로 국내 휴대폰 부품업체 디렉토리를 제작하여 대만 주요 휴대폰업체에 제공하고, 대만 휴대폰 및 휴대폰부품

산업의 기업현황, 생산, 유통, 수출, R&D 등에 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 국내 휴대폰 부품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조사에 의하면 대만의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중시되는 단순기능의 수동부품보다는 멀티미디어 기능, 카메라모듈, TV기능 등 첨단·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부품 및 S/W 분야와 외형, 디자인 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기업들의 주요 관심분야〉

- 디스플레이 관련 : LCD, OLED, 백라이트 등
- IC 류 : Backend IC, 메모리 IC, RF IC, 대용량메모리 등
- 배터리 : 리튬이온, 리튬폴리머 등
- PCB : 빌드업, 플렉시블 등
- 카메라 솔루션 : 카메라모듈, 렌즈, 플래쉬라이트 등
- 첨단기능 : TV튜너, GPS, 블루투스 등
- 측정기기 : 분석기, 테스터기류 등
- 소프트웨어 : 게임, JAVA, POC, 음성인식, 지문인식 등
- 디자인 관련 : 인테나, 케이스, 키패드, Hinge 등

이 사업은 기존 시장개척단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국가의 특정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코자 하는 "전략적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가 올해부터 KOTRA를 통해 지원, 일반 시장개척단에 비하여 매우 높은 성과가 예상된다.

본회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상담회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 중에 있으며, 오늘 15일까지 신청한 업체중 대만 휴대폰제조업체들의 구매상담회망 의사 등에 따라 최종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대만의 주요 휴대폰업체는

- BenQ, Arima, Qunta, Compal Comm, Compal ElectronicLiteon, Deftel 등으로서
- 본래 노트북PC 등 컴퓨터분야의 전문기업들이나 이동통신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휴대폰업체로 전환하였거나 정보기기와 통신기기 모두를 사업영역화하고 있다

본회는 또한 금번 8월 개척단과 연계하여 10월 한국 전자전기간(2004. 10. 6~10)중 대만 휴대폰제조업체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대만 휴대폰제조업체의 부품구매 패턴 및 개발동향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부품업체와의 개별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 한일 FTA 영향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회(회장 : 윤중용)는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상(FTA)에 따른 국내 전자업체들의 영향력 실태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이 결과를 토대로 7월 8일(목),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공청회를 겸한 통상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자업계 임직원 및 정부, 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일 FTA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주제발표 연사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낙균 박사는 “지역주의의 세계적 확산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세계가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 이후 ASEAN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ASEAN, 호주, 인도 등과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FTA를 늦출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 우리나라도 FTA협상이 우리 경제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 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FTA협상을 추진해야 하며, FTA의 범위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산업자원부 박기영 FTA 팀장은 “한일 FTA 협상동향 및 향후 일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측은 협상초기부터 공산품과 농수산물간 분리협상, 공산품 분야의 양허안 조기교환을 주장하는 등 협상을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공산품과 농수산물간 양허수준의 균형, 농수산물 분야 적

극개방 등을 주장함으로써 공산품 분야의 일측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유제일 상무는 일본과의 FTA를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지만, 양국간 협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의 여러 가지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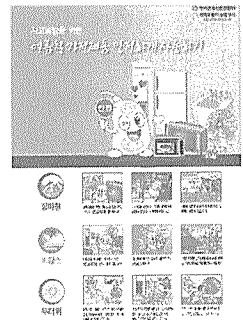
하지만 전자분야 완제품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 선진국인 일본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등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고 인식되고 있는 몇몇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도 아직까지 일본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밀려 경쟁에 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래 또는 첨단기술제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관세철폐를 최대한 유예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보세공장의 내수 판매분에 대한 관세부과나 일본산 무관세 부품수입 증가 등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회 강홍식 국제·환경팀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세양허안에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이며, 일부 산업피해 우려 품목인 알카리망간건전지, 홈씨어터, 진단용X선기기 등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에 대해서는 7년 등 일정별로 우리산업의 현실을 협상안에 반영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들은 대부분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다소 갖추고 있으나 기술수준 및 브랜드 인지도에서 크게 열위에 있으며 또한 사업초기 단계에 있는 품목들로 향후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간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 전자제품PL상담센터, 가전 업계와 여름철 『전자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캠페인 전개





무더운 여름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전자업계에서는 여름철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전자제품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여름철 『전자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본회(회장 : 윤종용) 산하 전자제품PL상담센터에 따르면 가전 3사와 공동으로 여름철 가전제품 안전관리 수칙을 마련하여 포스터 및 홍보용 전단지 제작, 전자제품 전문가(전자랜드, 하이마트, 테크노마트, 국제전자센터 등)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소비자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대형 전자업체도 자사 대리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한다. 특히 전자제품으로 인한 PL사고나 제품 고장원인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전자제품 안전관리 요령이 절실히 요구 된다. 이번 캠페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 번개가 칠 때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PC, TV 등 제품은 전원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장마가 계속되는 습기가 잦은 날씨에는 전자제품의 특성상 회로부품의 누전으로 감전이나 화재위험이 있으며 낙뢰(번개)가 칠 때에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PC, TV 등의 제품은 전원플러그를 뽑아두는 사전 예방조치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며, 비바람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경우에는 창문을 필히 닫아야한다. 창가에 놓아둔 PC 등의 제품은 콘센트의 물기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휴가시 휴대용 전자제품을 자동차나 햇볕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어 집을 장기간 비워두고 바깥스를 떠나기 전에는 사용하

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플러그를 반드시 뽑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고예방과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의 전기료 전락에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해수욕장이나 물놀이를 할 경우, 휴대용 제품을 물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당해 제품의 A/S 센터에 연락하여 긴급 수리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나 백사장 등 고온의 환경에서 휴대용 제품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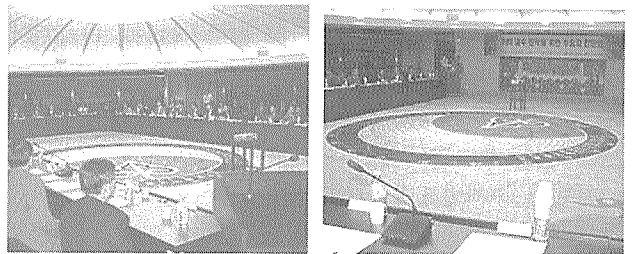
■ 취침 시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제품은 반드시 타이머 조절 필요

마지막으로 장마가 겹치고 무더위가 계속될 경우 취침 시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의 제품은 장시간 연속 사용하면 질식, 저체온증 등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타이머 조절을 설정하여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화재의 위험성 있으니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고, 특히 에어컨은 전용콘센트를 따로 사용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선풍기 사용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손가락 상해가 자주 일어나므로 가정에서는 안전망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회 전자제품PL상담센터에서는 이러한 여름철에 전기 전자제품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가전제품 안전하게 사용하기』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여 가정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본회, 보안용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내수 확대 추진



본회와 산자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보안용 DVR의 내수확대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DVR업계 대표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지난 6. 29(화)에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 수요자인 국방부, 조달청, 행자부와 금융기관, 통신서비스업체, 언론기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업계에서는 본회 산하의 DVR산업협의회(회장 : 이준우) 회원사 등 총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자부 정준석 생활산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안용 DVR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하반기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시장을 계속 선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수요자와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네트워크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수요자들은 보안용 DVR산업 동향 및 전망과 DVR 상용화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 DVR의 내수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수요자에게도 충분한 홍보와 자금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전자산업 퇴직 기술인력 중개센터』 운영

본회(회장 : 윤종용)에서는 기술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업종 대기업 퇴직 기술인력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산업정보망(www.eiak.org)에 “전자산업 퇴직 기술인력 On-Line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전자업계 대기업에서 퇴직한 기술인력을 위주로 하는 온-라인 인터넷사이트로서 특히, 전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대기

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검토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대상 대기업은 금년도까지는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전자3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전자산업정보망(www.eiak.org)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산업 퇴직 기술인력 중개센터”에 접속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이용문의 : 담당 김대성 대리, Tel. 02-553-0941(내선 304), dskim@eiak.or.kr

본회, 전자 중기 대상 e프로큐어먼트 구축 추진

본회(회장 : 윤종용)는 중소·중견 전자업체들의 구매조달분야의 경비절감과 원활한 전자부품 공급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e프로큐어먼트(Procurement)’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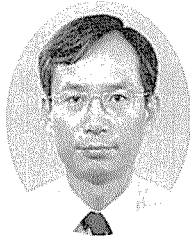
이번 e프로큐어먼트 시스템은 업계와 공동으로 구조·기능·설계 등을 맞춤형식으로 개발할 방침이며 오는 10월 참여 기업의 거래처 망을 하나의 풀로 구성해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1단계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업계에 맞는 주문 발주, 납입통지, 공동구매를 위한 전자입찰 등의 기능이 포함된 업계 공동의 시스템을 2단계로 개발기로 했다.

본회는 2단계 시스템이 개통되면 전자업계간 주문과 발주문서가 연간 50% 가량 줄어들고 구매비용도 각 기업당 1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에는 3단계로 기업들의 전자자원관리(ERP) 등 기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어택터의 개발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본회는 지난 9일 전자업계 임원 조찬회의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날 6개 업종 13개사가 참여기로 했다. ●



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주)고영테크놀러지

대표자 : **고 광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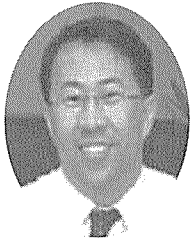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 대륭테크노타운 5차 605호

전화 : 02-2107-7421 팩스 : 02-2107-7426

<http://www.kohyoung.com>

3D In-Line Solder Paste Inspection Systems

(3차원 납도포 검사장비)



매커스

대표자 : **김 태 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8-14 시두인칩빌딩 4~7층

전화 : 02-563-8008 팩스 : 02-563-8411

<http://www.makus.co.kr>

셋탑박스 외



(주)에셈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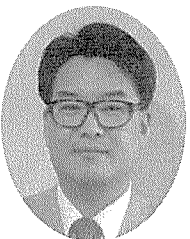
대표자 : **김 군 모**

서울시 강서구 화곡 6동 997-3 명지빌딩 3층

전화 : 02-2608-7774 팩스 : 02-2608-6636

<http://www.essemline.co.kr>

MP3 Player, Electronic Dictionary



(주)컴아트시스템

대표자 : **설 창 훈**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 | 701호

전화 : 02-2109-5678 팩스 : 02-2109-5656

<http://www.comartsystem.com>

DVR보드 및 컴퓨터 주변기기



(주)에스앤에스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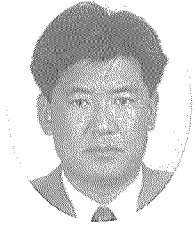
대표자 : **남 기 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림동 9번지

전화 : 053-589-1600 팩스 : 053-589-7170

<http://www.snstech.co.kr>

블랭크마스크(Blank Mask)



(주) 씨앤켐

대표자 : **김정석**

울산 울주 온산 대정 383-1

전화 : 052-239-6565 팩스 : 052-239-0035

유전체 보호막 소자용 MgO Pellet



알티전자(주)

대표자 : **김문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11-50

전화 : 031-222-3161 팩스 : 031-222-3163

<http://www.alti-e.co.kr>

전자제품, 통신기부품, 금형, 반도체부품, 자동차부품



(주)오피트정보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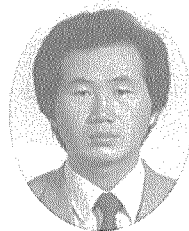
대표자 : **문중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27 썬테크노빌 302호

전화 : 031-205-4191 팩스 : 031-205-4197

<http://www.ophit.com>

DVI(Digital Visual interface) 시스템, Network System



이지파워

대표자 : **김명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0-5

전화: 031-424-4913 팩스 : 031-424-4914

전원장치



(주)이스트포토닉스

대표자 : **석호준**

대전 유성구 장동 23-14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 B1103-2

전화 : 042-863-2346 팩스 : 042-863-2348

<http://www.epinc.co.kr>

Optical Connector & Optical Filter Module